

JBC, 요르단에 염소 2만5000톤 투자

2005년 1월 완공 KOH 4만톤 생산에 이용 ... 유럽 및 아·태 주 공급대상

JBC(Jordan Bromine Company)는 2005년 1월까지 요르단 사해(Dead Sea) 부근에 위치한 Safi 컴플렉스 공장부지에 Membrane 염소(Chlorine) 2만5000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.

JBC는 Arab Potash와 Albemarle Holdings의 합작기업으로 Albermarle의 100% 자회사이다.

JBC는 2002년 10월 가동에 들어간 Bromine 컴플렉스에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염소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.

Bromine 컴플렉스는 Calcium Bromide, Sodium Bromide 및 Hydrogen Bromide를 생산하고 있으며 신설 플랜트는 Flake 1만5000톤 플랜트와 함께 KOH(Potassium Hydroxide) 4만톤을 연합 생산하게 된다.

JBC는 염소를 현지 생산함으로써 Bromine 및 유도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저코스트의 이점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.

요르단에서 생산된 Potassium은 현지 뿐만 아니라 프랑스 Thann에서 KOH 및 Carbonate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전망이다.

따라서 Albermarle은 요르단 및 프랑스 소재 2개 플랜트를 운용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시장에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신설 플랜트에서 생산된 제품은 주로 유럽 및 아시아·태평양을 중심으로 세계 전역에 공급될 예정이며 Albermarle Marketing이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1/28>